

## P-21 II급 치근이개부병변에 대한 조직유도재생술의 임상적 치유 양상의 비교

문선영\*,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근이개부병변은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형태, 기구조작의 어려움, 보조관의 존재등으로 인해 치유가 힘든 병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치근이개부병변의 치료를 위해 치태조절법,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교합조정, 재부착술, 이개부성형술, 이개부개조술 등의 술식을 행해 왔으나 기존의 술식에 의해서는 백악질, 치주인대, 치조골에 의한 신부착과 신생골형성에 의한 치주조직의 재생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치근이개부 병변에 조직유도재생술의 적용시 우수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치근이개부병변에서 차단막 단독 사용과 골 이식술과 차단막 병용시 치료효과와 상, 하악간의 치유양상 및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 치주과를 내원한 환자 중 전신질환이 없으며 만성 성인형 치주염으로 진단된 40-60세 환자의 상, 하악 제 1, 2대구치 협면의 치근이개부 병변 중 구강위생교육과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 후 Glickman의 치근이개부병변분류 Class II, Lindhe의 치근이개부병변분류 Degree 2에 속하는 치아를 대상으로 하여 비흡수성 차단막(ePTFE, Gore-Tex, W.L. Gore, Flagstaff, U. S. A.)과 탈회 동결건조법에 의한 동종골(Decalcified Freezed Dried Bone Allograft, Dembone, Pacific Coast Tissue Bank, U. S. A.)을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ePTFE막만을 사용한 상악 대구치 협면 II급 치근이개부병변을 I군으로, ePTFE막과 이식재를 병용한 상악 대구치 협면 II급 치근이개부병변을 II군으로, ePTFE막만을 사용한 하악 대구치 협면 II급 치근이개부병변을 III군으로, ePTFE막과 이식재를 병용한 하악 대구치 협면 II급 치근이개부병변을 IV군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각 군에서 시간에 따른 임상지수 변화를 관찰한 결과 I군, II군, III군, IV군 모두 치주낭 탐침 깊이, 부착상실양, 치아동요도가 감소하여 술 전과 술 후 3, 6, 12개월의 측정값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치은열구 출혈지수와 치은퇴축양은 술 전과 술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단막 노출정도는 II군에서 술 전과 술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시간경과에 따른 각 군간의 변화량 비교시 술 후 3, 6, 12개월에서 치주낭 탐침깊이만이 ePTFE 차단막을 단독으로 실시한 군과 골 이식술을 병용한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며 골 이식술을 병용한 군에서 더 많은 감소를 보였는데, IV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I군에서는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p < 0.05$ ).

부착획득양은 술 후 3개월에 IV군에서 가장 많은 양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술 후 6개월에 I군에서 가장 적은 변화가 나타났다.

술 후 합병증은 동통이나 부종이 많이 관찰되었다.